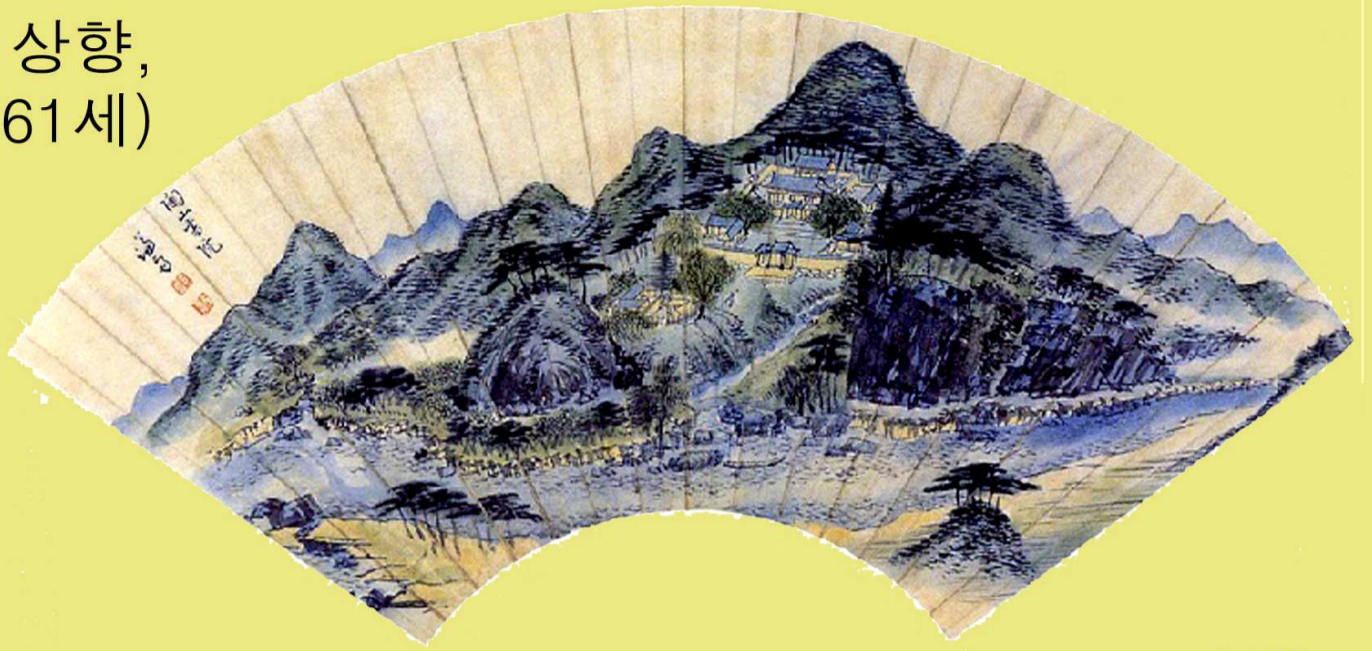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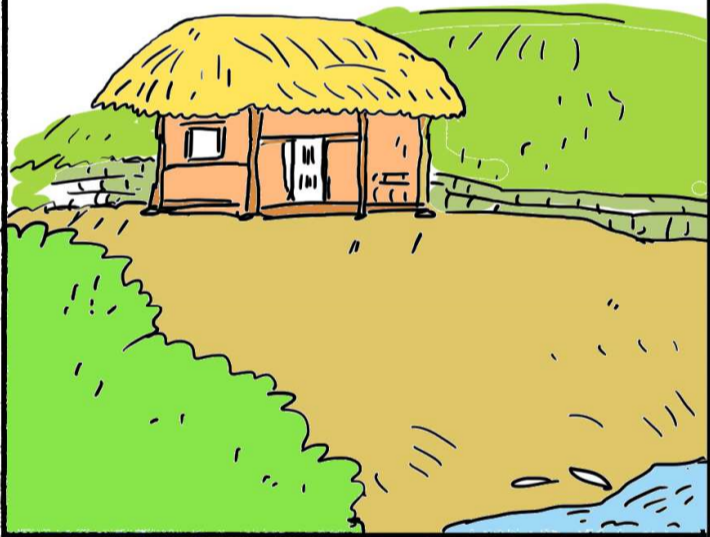


40. 배움의 이상향,
도산서당(61세)



*도산서원(겸재)

계상서당에 제자들이 많아져서
서당을 옮길 만한 터를 찾아다니다
거의 포기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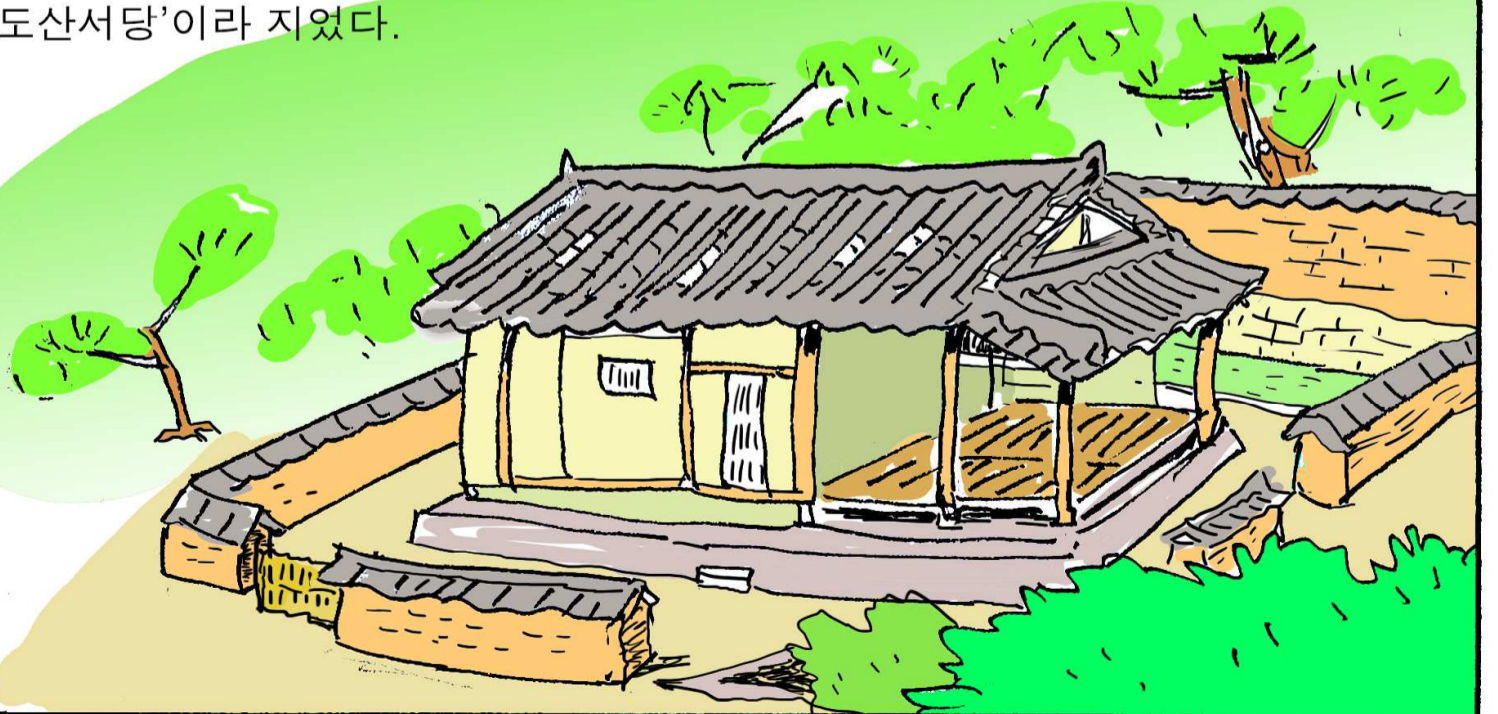


제자들이 현재의 도산서당 터를 추천하였으나 몇번
거절하다 혹시나 해서 가보고는 너무 좋았던지 시까지
남겼다.

어찌 알았으랴
백년도록 숨어 뒀을 터가
바로
평생토록 나물 캐고 고기 낚던
그 곁에 있을 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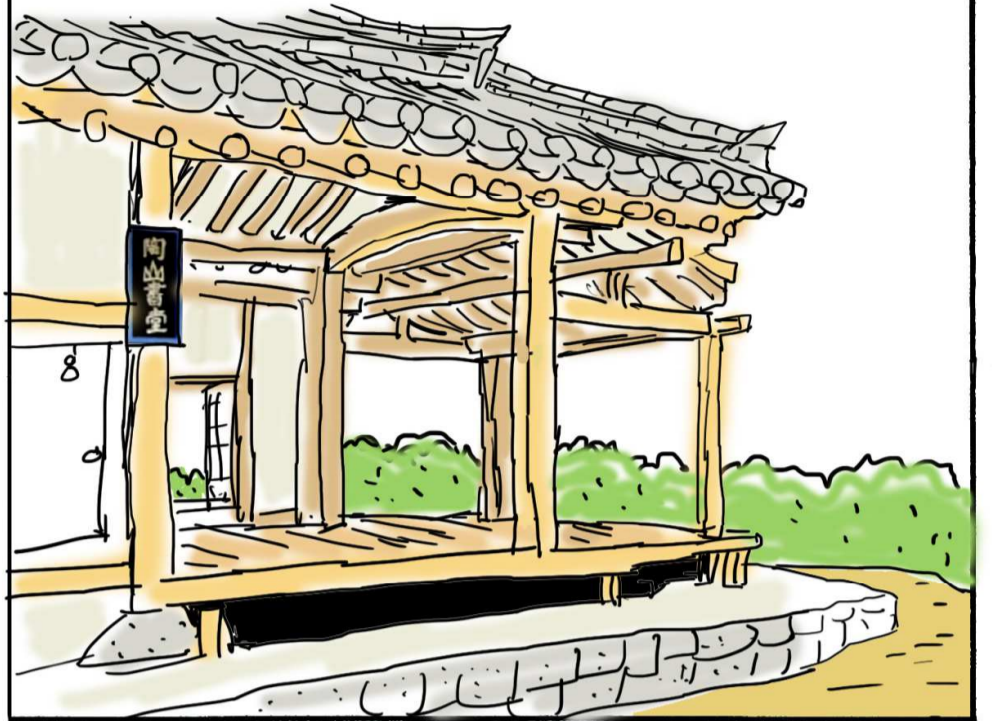
퇴계가 직접 설계하여 5년 간의 공사 끝에 환갑이 되는 해에 겨우 거처할 만한 당사가
완성되니 이름을 '도산서당'이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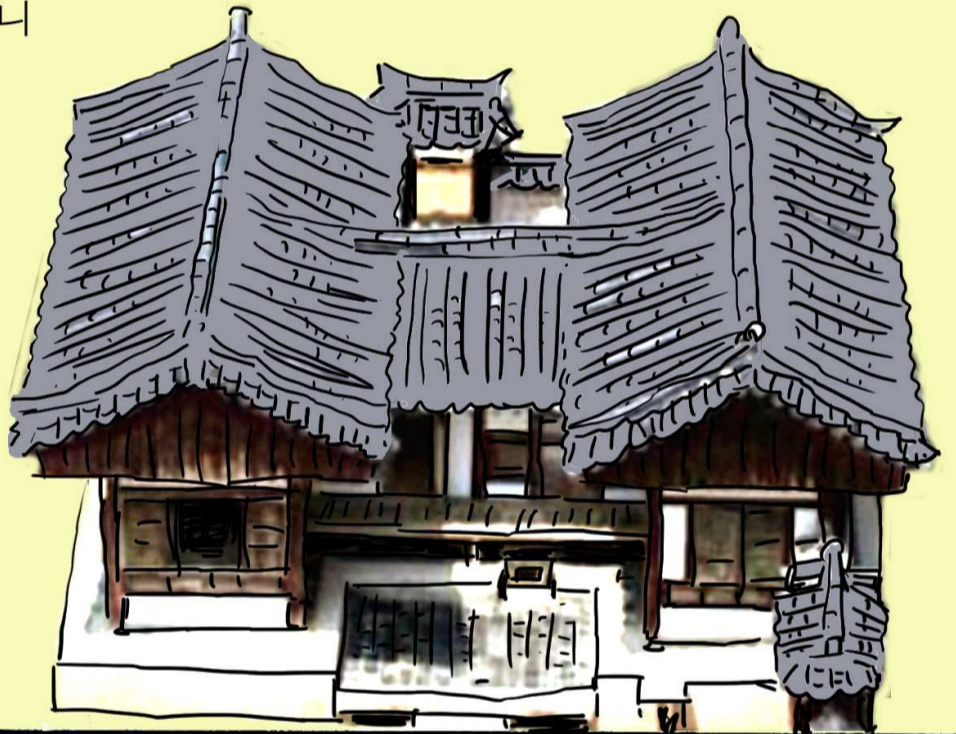
퇴계가 거쳐하는 곳은 완락재로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가 있을 정도로 좁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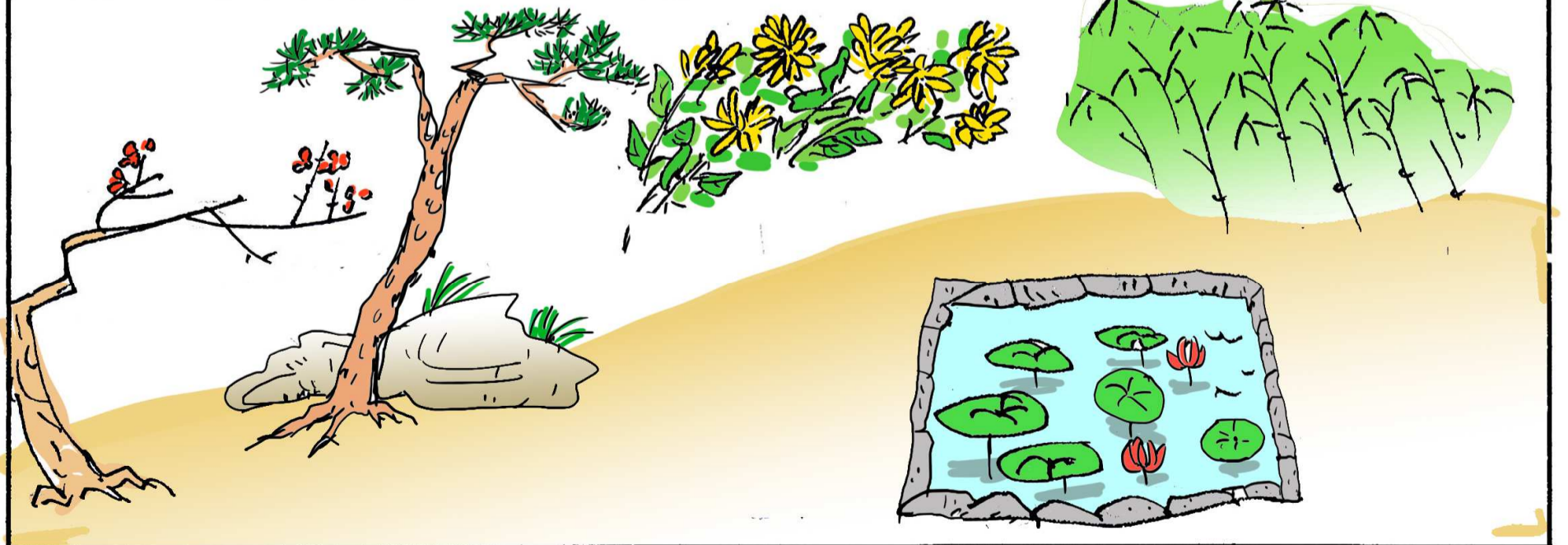
제자를 가르치는 마루는 암서헌



제자들이 머무는 기숙사는 농운정사로 하니 제자들이 몰려들었다.



사당의 동쪽 옆에는 화단을 조성하고 퇴계가 좋아하는 매송국죽을 심고 절우사라하고 연못도 조성하여 연을 심고 정우당이라 했다.



거처할 방이 완성되자 책을 옮겼다.



깊은 밤까지 책을 읽다가 사색에 잠기곤 했다.



가슴이 벅차 오르면 시를 지었다.

텅빈 산 속 방하나 고요한데
밤 기운 차가워서
서리 질게 내리고
베게 배었으나 잠이 아니와
홀로 일어나 앉아
웃기 여미고
.....
.....



도산서당이 완성된 후 퇴계는 그곳에서 지내는 즐거움을 기록한 “도산기”를 썼다.



이제 도산서당에는 학문을 배우고자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퇴계도 직접 편찬한 “주자서절요”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점차로 자리 잡아갔다.

